

맑키스트의 宗教意識 (一)

鄭東哲

社會主義者 特히 맑키스트[마르크시스트]의 宗教反對의 見解에 對한 理解와 批判은 朝鮮에서는 아직까지 볼 수가 없다. 昨冬이었던가? 「基督申報」紙上에서 蔡弼近氏가 基督教과 社會主義라는 題下에 宗教와 社會主義와의 關係를 論한 것을 본 일이 있고 또 二三年됨즉하다.

米國 留學生 機關誌 「우라키」와 「開闢」誌를 거쳐서 廉, 梁 두 사람이 亦是 社會主義와 宗教와의 關係로 論筆된 일이 잇섯을 뿐이다. 그러나 遺憾인 것은 上記 蔡弼近氏의 論文은 社會主義에 對한 理解가 極히 弱하여 論題의 目的을 達하지 못한 것이었고, 上記한 廉, 梁 兩人的 論筆이 亦是 社會主義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酪□等이나 浮浪者를 社會主義者로 몰아눅고 얼토당토 안한 酬酌을 하는 곳에 쓰치고 말었다. 이러한 缺陷에 臨하여 筆者는 맑키스트의 宗教論을 可及의 素朴하게 紹介하게 된 것이 이 小論이다. 小論에서 보히는 바와 가티 筆者는 아모런 批判도 加하지 아니 하얏다. 宗教와 社會主義와의 關係를 研究하고자 하는 讀者의 便宜를 爲하여 다음에 參考書 三四種을 紹介하여 둔다.

(一) 佐野學--無神論과 其歪曲 (改造誌) (單行本으로 發刊되었다.)

(二) 佐野學--宗教論 (맑스講座)

(三) 쏬스팔고--社會主義와 宗教 (日譯有)

(四) 엘리웃드--基督教과 社會科學 (日譯有)

以上 中 (一), (二)는 純 「맑키스트」의 立場에서 宗教를 否定한 것이요, (三)은 「스팔고가 카트릭[가톨릭]」敎人인 만티 舊敎의 立場에서 社會主義와 宗教의 造化에 努力한 것이요, (四)는 社會學者의 立場에서 社會科學과 宗教의 密接한 關係를 說하여 結局 宗教와 社會科學의 互助的 意義을 明瞭히 한 것이다. 이 著者에게는 「宗教의 改造」라는 著書도 있다. 이 著者는 新敎信者인 만치 亦是 新敎의 色彩가 드러난다.

朝鮮에 잇서서는 現段階에 잇서 大同團結×××爭을 云云하여, 宗教信者도 抱護한다는 關係로 宗教에 對한 定義鬭爭이나 攻擊이 아직까지 업는 □□이

다. 그러나 將來에도 亦是 그러하리라고 미더서는 안니 된다. 何如間 宗教批判이 輕忽히 못할 重要的 意義를 가진 以上 早晚間 問題化하게 될 줄 안다. 基督教□에서 나힌 社會에 關聯한 書類는 「맥도날드」의 「基督教社會運動」, 「볼마-」의 「新約社會論」 其他 數種이 있다.

一, 宗教의 本質

宗教는 人間頭腦의 幻想的 產物이다. 表象, 概念, 意識 等の 觀念이 獨立的, 主體的으로 存在하는 것이 아니라, 人間の 物質的 活動, 人間の 物質的 交通에서 由來된 것과 가티 幻想, 空想과 如한 類도 亦是 그러하다. 神佛과 如한 超人間力--不可思議의 怪力的 存在가 잇서서 人間生活이나 社會, 自然을 움죽인다는 妄想도 □□은 社會의 物質的 生産過程 卽 社會의 生産力--生産의 社會的 條件의 發展에 依하여 決定되는 것이다. 舊唯物論者--「퍼-엘 밋하[포이에르바하]」와 如한 一派는 宗教가 人間意識의 欺瞞의 一種인 것을 逆說한다. 그러나 「맑키스트」는 宗教로써 單純히 一種의 人間意識의 欺瞞으로 볼 뿐 아니라 그 根源을 人間の 物質的 生産過程에 換言하는 것이다. 實로 人間意識이 人間の 生活을 決定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는 反對로 人間生活이 人間の 意識을 決定하는 것이다. 날근 生活關係가 解體되면 同時에 날근 思想, 날근 意識도 必然的으로 解體된다. 그러나 宗教는 哲學과 共히 最高級의 「이데올로기-[이데올로기]」에 屬하는 故로 經濟的 條件과의 間에 無數한 中間的 條件이 介在한다. 그럼으로 宗教와 物質的, 經濟的 基礎와의 關聯, 反映關係는 明瞭히 意識되지는 안홀 싸름이다.

人間頭腦의 幻想的 產物! 宗教는 實로 自己의 自然的, 人間の 內容을 버리고 幻想的 超自然力, 超人間的 存在에 隸屬함을 意味한다. 人間이 그 人間の 內容을 彼岸의 神이라는 幻想에 引渡하여 버리는 것이 宗教의 本質이다.